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정책현장탐방

-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세계를 휩쓴 미투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예술·스포츠·교육·정치·종교 등 가히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그동안 가리워져왔던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다.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 미투를 둘러싸고 전개된 다양한 논의를 배경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과 대책 요구 또한 강렬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을 만났다. 면담은 2019년 12월 4일(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보화 책임연구원(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우)과 김보화 책임연구원(좌)

개인도 사회도 변하고 있어 … 미투라고 자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사회가 위드유라고 응답하는, 이것은 대단한 변화다 …

김보화 책임연구원(이하 김) 지난 여성운동 30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한국성폭력상담소 초대 소장이시기도 한 선생님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한 중심에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성폭력, 특히 성폭력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최근의 미투운동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결들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영애 위원장(이하 최) 차이라기보단 발전이겠죠. 사실 1991년에 한국성폭상담소 열 때, 그 때 여성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8개월 간 우리끼리 스터디도 하고, 검사, 법조인, 의료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부했었어요. 그 때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틀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아니예요. 미국에 Rape crisis center(강간위기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도 한국강간위기센터 개념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여성 인권 문제에서 강간이라는 특정한 행위만이 문제로 다뤄지게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뛰어넘는 게 뭘까? 우리가 제기하려는 문제의 본질은 뭘까? 했을 때 여성에 대한 폭력, Sexual violence(성폭력)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언론에서는 다 '몹쓸 짓을 당했다' 처럼 강간이란 용어를 잘 못 쓰거나, 좀 돌려서 표현했었으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열었을 때만해도, '세상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뭘 그런 걸 여냐?' 그랬어요. 그 때는 성폭력상담소를 연 것에 굉장히 사회적 의구심과 의혹과 여러 가지 부정적 시선이 강했어요. 그리고 성폭력이란 단어를, 너무 세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분은 남편한테 오늘 어떤 회의에 가는지를 말을 못하고 왔다고 할 정도로 성폭력이란 단어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말하기도 어려워했어요.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하면 그 때는 자기 문제를 토로할 수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미흡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또, 예전에 상담소에는 20년 전 것, 30년 전 것, 아주 최근거라고 해봐야 5년 이상 지난 걸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오는 거, 이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 대회를 성폭력상담소가 한참 후에 하죠. 그게 한 10년 후에 한 거예요. 그것도 비공개로 했어요. 굉장히 용기를 주지만 사회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개인도 사회도 변하고 있는 게, 미투라는 걸, 자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사회가 위드유라고 화답하게 된 것, 저는 이거는 대단한 변화다. 인식 차원에서도 제도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폭력특별법 만들 때도 저항이 많았죠. 처음에는 법사위에서 '우리나라가 성폭력 공화

국임'을 온 세계에 알릴 일 있냐.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아동성폭력, 근친간 성폭력 문제가 나온 거죠. 다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랬지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친강간은 비친고죄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법은 통과됐는데 예산을 안 주려고 해서 또 고생했어요.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가해자가 부모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성폭력상담소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성폭력상담소가 200여개 가까이 있다면서요?

김 네, 전국적으로 170여개가 있어요.

성을 바라보는 인식은 참 변하지 않아 …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 그동안 쌓여왔던 것에서 물꼬가 열린 측면에선 변화가 있는데, 여전히 여성에게서 유책사유를 찾는 경향은 아직 그리 변화하지 못해 …

최 그건 변화인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어린이까지는 사회가 받아준다는 거죠. 근데 청소년 이상부터 그리고 성인 여성으로 가면 여전히 유책사유, 귀책사유가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극적 귀책사유를 여성에게 물었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니가 밤에 다녔고', '어쨌든 니가 짧은 치마를 입었고'하는 식으로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그 안희정씨 관계에서도 '니가 성인인데 왜 진작 이걸 방어를 못하고 너도 좋아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처럼, 성을 바라보는 인식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 여검사라든지 또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 이게 그동안 죽 쌓아왔던 거에서 어디 물꼬를 하나 열어준 그런 측면에선 변화가 있고, 여전히 여성에게서 유책사유를 찾고 있는건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공감합니다. 미투운동과 연관이 있기도 한데, 최근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실태조사 진행하시고 발표하시고, UN에 의견서 내시고, 특별조사단 활동까지 진행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황들에 대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인권위 활동하시는 걸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조사와 조사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접 살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최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도 사실 이 조직구조가 여성의 위치에서 말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 친밀감으로 가장되고 있는데, 스포츠는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중고에서 아이들을 합숙소에서 지내게 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많아서 합숙소를 공식적으로는 없앴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적, 성과중심적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모텔을 얻는 식으로 음성적 형태로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 어리고, 절대적 권력 관계 속에 있고, 그러면서 그루밍도 가능해지는데 아이들이 이게 희롱인지 추행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이 문제를 외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심석희 선수의 폭로가 있었고 파장이 컸는데 그러면 그 동안 스포츠계에서의 성폭력이 없었다고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초중고생 6만 3천명과 실업선수 중 1천 2백명을 조사 했어요. 그리고 실업선수들은 한 30% 넘게 언어폭력 경험이 있고, 신체폭력, 성폭력 모두 심각해요. 3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거지요. 초중고 학생선수는 아직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10% 넘게 폭력 경험이 있고, 성폭력 경험도 중학생은 5%에 육박해요.

그런데 스포츠 쪽은 폭력 가해자들이 아이들의 선수생명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제기가 더 어렵죠. 문체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체육계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인권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 고민을 담아서 여러 권고를 하려고 해요. 10년 전에 인권위가 스포츠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개선 권고를 했는데 또다시 이 사건이 터진 건데요. 이번에는 인권위가 범정부적 성격을 갖고 부처간 협력도 하고 실태조사와 교육도 병행하면서 권고안을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권위에서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선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100만이 넘게 봤다고 해요. 미투도 그렇고 스포츠인권도 그렇고 저는 올해에, 여성계도 인권운동에도, 한 단계 올라서는 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저는 이렇게 많은 운동의 역사 속에서 선배님들의 활동에 수혜를 입은 세대이기도 한데요. 최근 역차별이라고 하는 담론이 한편에서 너무 강해지고 일부 남성들은 인권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양극화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82년생 김지영'처럼 영화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여자친구랑 헤어지겠다 할 정도로 '남자가 더 힘들고' '남자가 더 피해자'고 '역차별'이고, 이런 담론들이 많이 생길 때 인권위에서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 백래쉬일 수도 있고, 공격이나 반대 담론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역차별 혹은 일종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백래쉬들을 만났던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인권위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역차별 담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성에 대한 백래쉬도 단지 이념적 공격과 인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제도와 형식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 여성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설득력도 있고, 여성들이 자기 이해만 따진다는 식의 편견을 넘어 설 수 있어 … 그런 관점으로 인권위에 있으면서 여성문제를 많이 제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

최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양극화가 이뤄지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사실은 서서히 되었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여성이 외교관의 50%가 넘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 하는 사람의 50%를 넘는다 등, 남성이 50%를 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성이 넘는 순간 사회가 잘못 가고 있고, 우리 거를 뺏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중요한 포스트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또 한국사회가 독특한 게 군대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갖는 상실감, '너네가 시험을 잘 치는 이유는 이 공백기가 없어서'같은 이야기들. 일정 부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건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남성들이 군대 가는 문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군 옴부즈만을 만났었어요. 한참 전이긴 한데 그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데 군 옴부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문철학, 사회과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놀랬어요.

백래쉬가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 사회가 이게 강해요. 남녀혐오 백래쉬는 사실 여가부와도 관련 있는 거죠. 인권위는 동성애, 이주, 난민, 북한인권, 북한주민을 어찌할 거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죠. 인권위의 차별 사건에 아주 재미있는, 여성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눈여겨 보아야 되는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승무원에 지금 여성을 80% 남성을 20% 뽑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명수도 차이가 있게 뽑고. 그러니 여러 관련 대학에서 명 수를 제한을 하나봐요. 왜냐면 그만큼 남자를 안 뽑으니까. 이게 차별인가? 근데 실제로 승무원이 꼭 여성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의식과 인식 속에서의 백래쉬만 있는 게 아니고,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이란 이름으로 인권위에는 그런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할당제에 대해서도 아직 할당제 취지가 자리도 잡히기 전에 역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성학을 하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에요' 이런 식의 건의가 인권위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잖아요? 여성에 대한 백래쉬도 단지 이념적 공격과 인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도와 형식에서도 이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런 백래쉬가 다양하게 지금 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그래서 성별보다 인권이 먼저 판단돼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좀 있어요.

이제 여성문제 성희롱문제, 성희롱 사건을 하기는 하지만 여가부하고의 역할에 있어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처음 인권위가 만들어질 때도 여가부에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여성운동 현장과 인권위원회에 있으면서 여성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제기해야만 한다라고, 그리고 이걸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할 때 사회적 설득력도 있고, 인권을 여성들이 자기 이해만 따진다는 식의 편견을 넘어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태문제도 옛날 같으면 인권위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봤을 거에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여성의 인권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인권위에 있으면서 여성문제를 많이 제기하려고 생각중이에요.

김 수적인 평등이, 성주류화 담론이 너무 기계적으로 들어오면서 무조건 50:50으로 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인가 국가인권위에 강의를 하러 왔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가 진정을 넣으면, 가해자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같은 사건에서 서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고, 남자도 피해자고, 원치 않았는데 어깨를 툭툭치고 갔다거나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힘들다는 말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가부, 여성학자, 여성운동단체에서 젠더이슈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본연의 역할인데, 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인권위, 여성들과의 관계맺음이나 젠더적 감수성 부족한 측면 있어 … 기계적 인권이 아니라, 젠더적 관점이 인권적 관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

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연구 작업도 해요. 그런데 연구진들이 한국의 100년 운동사를 하는데, 여성운동이 없는 거예요. 꼭지가.

김 진짜요?

최 예. 삼억이 넘는 예산으로 책이 엮어지는데 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성운동은 인권운동에서 자유권과 사회권과 정말 모든 것에서 여성들이 했는데, 왜 없느냐? 사실 직장에서의 노동권을 이야기하면서 성희롱이 나왔던 거지요? 여성운동에서 호주제 폐지도 개개인의 인권, 독립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성폭력도 자유권에서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지요? 사실은 인권 역사에 여성운동이 끼친, 그래서 발전시킨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해 놓은 거였는

데, '어떻게 여성이 하나도 없나요?' 물어보니까 아예 여성 꼭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집필 기획단에 분야별로 여성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 활동 영역이 다르고 젠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권위조차도 생물학적 여성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작업 막바지이긴 했지만 여성운동사를 넣자고 해서 들어가게 됐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위원회에도 젠더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젠더적 관점이 인권적 관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최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어느 선생님이 쓴 꼭지가 하나 있어요, 어쨌든 여성운동 따로 있고 인권운동 따로 있는 거예요.

김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신 게 너무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현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 제가 이전에 여성으로는 사무총장을 처음 했어요. 이제까지 다 남성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메이트로 왔었어요. 사무총장은 임기는 없지만 새위원장이 오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사무총장을 제청했는데 그 사람이 여성이예요. 그랬더니 위원위 안에서 위원장도 여성인데 사무총장도 여성인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다 남성이였던 거 기억 못해요?' 했더니 '아, 그랬구나'해요. 남성위원장 남성사무총장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여성위원장에 여성사무총장 조합은 너무 과하다고,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김 네,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같이 대표자가 되면 늘 그런 식의 문제제기를 받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노인인권이라든지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오시고,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이런 분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군대라든가 한국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인권의 영역이랄까? 그런 게 혹시 있을지요?

최 제가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4가지 책무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한국사회에 혐오차

별, 이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 그리고 범정부적 동참 이걸 끌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1년 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혐오차별이란 단어를 지금 정부 부처마다 사업과제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부서에 그 비슷한 업무를 주거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서울시, 경기도, 광주, 전북 교육감 네분하고 학교에서의 혐오차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의 대응도 하고, 실제로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육도 하고, 이런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교육감들께서 내려가서 그걸 과제로 주기도 하고 어떤 팀을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을 준비하고 적어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회적 공감대, 의식. 그리고 그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법, 이것을 만들 생각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남녀 문제도 그렇고, 노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집안에 일하는 여성을 노동하지 않고 기생하여 산다는 혐오표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낙인들,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ILO의 적극적인 노동3권 보장 이야기, 사형제 폐지,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 같은 이슈들에서 역할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인권위가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부처에게 권고하고 대통령에게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인권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처들이 예전보다 훨씬 진중하게 받고 수용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인권도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3일 북한인권포럼에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갖는 롤이 있어요. 저는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도 그 나름의 어떤 효력,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북한에서 국제기구협약에 보고서를 성실히 내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 장애, 자기네들이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견인해내는 국제사회의 역할, 또 정부는 정부가 하는 역할, 인권위는 인권위가 하는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각국 대사들이 엄청 인권위원장을 보러 와요. 여성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오고, 북한인권 관심 있는 사람, 사형제폐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오고.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지금보다 더 좀 어떤 행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인권위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적어요. 사람도 적고. 인권의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담지 못하는 게 걱정이에요.

김 여기까지 준비해 온 질문들이었구요. 후배활동가로서 위원장님이 큰 롤모델이 되면서,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력을 넓히게 하고 힘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 그리고 여성학,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에 인권운동의 범주와 인식의 확장에 크게 기여 … 인권을 1차적 자유권에서 나가지 못하던 거를 넓히고,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주민, 난민, 장애인 이런 영역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게끔 한 것에는 여성운동이 큰 역할 …

최 저는 여성운동은 사실 한국사회에 인권운동의 범주와 인식의 확장에 아주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을 굉장히 1차적 자유권에서 나가지 못하던 거를 넓히고,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주민, 난민, 장애인 이런 영역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게끔 한 것에는 여성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NGO는 놓여진 상황이 헌신을 굉장히 요구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도 많고 길게 가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지요. 이런 현실을 해소하는 것에는 정부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늘 아마 그런 힘으로 버틸 거예요, 자부심과 자긍심, 이런 걸로 버틸건데, 박수 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성들이 했던 거는 저는 정말 의미있는 진전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차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다름이 다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여성들이 좀 더 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NGO와 GO를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여성단체나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NGO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부처가 하는 걸 엄청 터부시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때도 NGO에 있다가 GO도 가고, GO에 있다가 NGO도 오고 이래야 발전과 각 영역에 협업이 있다. 혼자만 따로 가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미국에 젊은 나이에 가서 그 사회를 보면서 NGO로 있다가 GO로 가서 막 일하다가, 또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을 하고, 아마 이런 걸 봐서 그랬던 거 같아요.

과거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할 때, 저는 임기가 다 끝나면 상근자로 일할 생각이 있다 했더니 전부 다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도 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활동하는 목적이 말하자면 여성 인권과 인간의 인권을 높이려는 거지, 요구가 목적인 게 아니잖아요? GO든 NGO든,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받아들여야지, '왜 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김 약간 경직된 면이 NGO 활동가들에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권위 초창기에 제가 여성운동 활동가들더러 막 들어와서 일하라고 권유했어요. 그랬으면 지금 과장이나 국장 등 위치에서 정말 역할을 할텐데. 그 때 들어온 여성들은 NGO출신이 아니고, 전문가 영역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인권위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다 일반직이 돼서, 아니면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구요. 그래서 좀 아깝다, 그런 게 있을 때 가는 걸 옆에서 자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격려의 말로는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디든지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김 시대가 바뀌니까 인권이나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점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서,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되지 않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최 그럼요. 그리고 GO에 있다가 NGO를 가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약간 NGO는 자기 시간을 무한으로 내주고, 무엇을 맡겨도 너네 사명이지 않냐?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수고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똑같은 관점으로 NGO들의 활동과 수고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김 헌신이 너무 강조되기는 하지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저희는 지금도 논의하고 고민하는 지점들이라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워낙 NGO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잘 알고 계시니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되고 배울 지점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 자리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예,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 기록 : 김태은 프리랜서
- 정리 : 김보화 책임연구원/KWDI 실무진